

작업치료사의 관계갈등체험에 관한 연구: Parse의 인간 되어감 연구방법 적용

송병남*, 김슬기**, 박지훈***, 장종식****, 전영혜*****, 전병진*****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작업치료과

**보바스기념병원

***대전보건대학 아동발달연구소

****대전요양병원 작업치료실

*****보니파시오요양병원 재활센터 작업치료실

*****강원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국문초록

목적 : 임상에서 근무하고 있는 작업치료사들이 겪게 되는 관계 갈등의 구조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임상에서 작업치료를 하고 있는 작업치료사 8명과 2011년 2월 한 달간 1~2회 대화를 실시하였다. 참여자들이 임상에서 겪게 되는 관계 갈등에 대하여 반복되는 이야기나 더 이상 새로운 내용이 나오지 않는 포화 상태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 및 분석은 Parse의 인간되어감 이론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

결과 : 연구결과 작업치료사가 겪고 있는 갈등은 작업치료에 대한 주변사람들의 이해부족, 초임으로서 주변사람들과의 갈등, 작업치료에 불이익을 주는 기관의 시스템으로 나타 났으며, 참여자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발전을 하고 작업치료의 효과를 제시하는 방 식으로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작업치료에 대한 밝은 미래를 희망 하 고 있었다.

결론 : 임상에서 겪는 갈등은 상호작용하는 주변사람들이 작업치료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발 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작업 치료에 대한 효과를 주변사람들부터 인식시킴으로써 작업치료를 알릴 필요가 있다.

주제어 : 관계갈등, 인간되어감 이론, 작업치료사, Parse

I. 서 론

경제성장에 더불어 산업화와 공업화, 교통수단의 발전과 인구 고령화 등의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치료의학, 예방의학에 못지않게 재활의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권정아, 2006). 그러면서 재활의 역할과 책임도 함께 커지고 있어 재활의학의 수요와 질에 대한 요구도가 향상하고 있으나

그 요구를 받아들이는 재활의학 종사자들의 스트레스에 대한 관심은 미비한 실정이다(권정아, 노재훈, 장세진, 원중욱과 심상효, 2007).

직무스트레스란 업무상 요구사항이 근로자의 능력이나 자원, 요구와 일치하지 않을 때 생기는 유해한 신체적 정서적 반응이라고 정의하였다.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는 사회나 학교에서의 대인관계로부터 생기는 갈등, 좌절, 불안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이며 대부분의 스트레스는 일의

요구도가 높고 통제력이 낮을 때 발생한다(Karasek, 1987). 직무스트레스가 적정할 경우 직무수행에 있어 창조적인 문제해결과 동기유발에 기여하지만 스트레스가 과다할 경우 역기능이 작용하여 직무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직무스트레스의 유발 요인은 물리적 환경, 직무자율성, 직무불안정성, 조직체계, 직장문화, 업무보상, 관계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될 수 있다(Wressle & Öberg, 1998).

작업치료는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발달과정에서 어떠한 이유로 기능이 저하된 사람에게 의미 있는 치료적 활동(작업)을 통해 최대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고 능동적으로 사회생활에 참여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치료, 교육하는 재활의학의 한 분야이다(대한작업치료사협회, 2002). 따라서 작업치료사는 물리적, 인지적 변화가 있는 클라이언트(client)들이 요구하는 일반적인 작업에 중재를 하고 사회생활에 참여하기 위해 지원, 보조도구 사용 권고 보호자 교육을 포함하는 치료 팀의 하나이다(이재신, 이택영, 이지연과 유은영, 2005).

작업치료사들은 업무의 특성상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스트레스가 높으며, 클라이언트 및 보호자와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 스트레스가 증가하게 된다. 또한 다른 직업군에서도 나타나듯이 동료치료사나 상사와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 부적절한 대우 및 보상을 받을 경우, 전문직으로서의 역할 갈등과 전문지식과 기술의 부족, 심적 부담과 업무로 인해 피로함을 느낄 때에 스트레스가 높아지게 된다(권정아 등, 2007; 양영애, 허진강, 노영만과 이규창, 2007; 한대성, 정민예, 유은영과 정보인, 2008). 이중 동료치료사, 상사(의사), 병원 관계자와의 관계 갈등은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적인 일에 있어 조직의 내적, 외적인 갈등에 대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초래되는 정신적, 신체적인 갈등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민명식, 2008). 관계갈등이 낮을수록 업무만족도, 직업만족도, 보상 및 기회 만족도 등이 높아졌으며, 이러한 직무만족도를 높이고, 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하여 관계갈등과 조직체계의 스트레스 요인을 줄여야 한다(권정아, 2006).

갈등 체험을 연구하려면 개인의 주관적인 체험을 중시하는 질적 연구 방법이 적절한데, 본 연구에서는 작업치료사의 관계갈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질적 연구 방법 중의 하나인 Parse(1992)의 인간되어감(human becoming) 연구방법을 선택하였다. Parse의 인간 되어감 연구는 유사

질적 연구방법들과 달리 인간의 보편적인 체험에 대해 참여자와의 구조적 면담이 아닌 너와 나의 관계형성을 유도하여 면담 보다는 대화를 통해 진정으로 함께 하는 것을 추구한다. 유사 질적 연구 방법들에서는 추상적 논리를 통해 결론을 도출해 내고 있지만, Parse의 인간 되어감 연구에서는 발견적 해석을 통하여 구조적 통합과 개념적 해석을 통하여 인간 경험 현상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고자 한다(이정숙, 이옥자와 고명숙, 2002). 인간 되어감 이론은 인간과학을 근거로 하여 인간적으로 경험한 현상의 의미를 밝히기 위한 이론이다(노춘희, 이옥자, 이정숙과 고명숙, 2002). Parse(1992)는 대상자와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생생한 체험과 진실성 있는 대화를 함께 함으로써 변화된 환경에 적합한 최적의 기능을 개발해 대상자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이 이론에서는 개인의 독특한 삶의 경험을 중요하게 여기므로 작업치료사가 임상에서 겪게 되는 갈등 체험을 연구하는데 적합하다고 보았다(Lee & Lee, 2002).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Parse의 인간되어감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임상 작업치료사로서 겪는 관계 갈등 체험들을 도출함으로써 작업치료사로서의 역할 수행과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과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Parse의 연구방법(Parse, 2007)을 적용하여 임상에서 근무하는 작업치료사를 대상으로 근무하면서 겪게 되는 갈등체험의 구조를 밝히기 위한 질적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대전 지역에 있는 사설치료실, 병원, 요양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작업치료사를 대상으로 근무를 하는 동안 겪게 되는 ‘작업치료사들의 관계 갈등체험’을 연구자와 함께 너와 나의 대화를 통하여 긍정적인 자기수용과 자기이해의 과정을 경험하도록 하였다. 참여자들은 현재 근무지에서 6개월 이상의 경력자 또는 2년 이상의 임상경험이 있

는 작업치료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중 임상경험을 하는 동안 겪었던 관계갈등에 대해 대화를 할 수 있는 작업치료사로 선정하였다. 연구계획을 충분히 설명하고 개인신상에 대한 어떤 자료도 다른 사람에게 노출하지 않으며 연구 참여를 거부할 수도 있음을 설명한 후 동의하는 8명을 대상으로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았다. 참여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3. Parse의 인간되어감 연구 방법

Parse의 인간 되어감 연구는 너와 나의 관계형성을 통하여 연구자와 참여자가 진정으로 함께 하며 참여자의 경험에 대해 비구조적인 대화를 나누는 과정으로 시작된다. 다음으로 참여자 경험의 주요 내용을 추출하여 참여자의 언어로부터 과학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연구자 언어로 종합한다. 종합한 언어로 각 참여자의 서술에 명제를 만들고 핵심 개념을 뽑아내어 체험의 구조형태를 종합하는 추출-종합과정이 이루어진다. 추출-종합과정은 참여자의 언어로부터 과학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체험의 구조형태에 대한 개념적인 본질을 선별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발견적 해석 과정에서는 체험의 구조를 이론과 연결시키는 과정으로 논리적이고 추상성이 높은 창조적인 마지막과정이다. 구조적 통합과 개념적 해석과정을 거친다(이상윤과 이경희, 2002; 이정숙 등, 2002).

Parse의 인간 되어감 이론은 3가지 주요개념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는 상상화(imaging), 가치화(valuing), 언어화(languaging)를 통한 의미(meaning) 구성이다. 상상

화는 동시에 명백한-잠잠한 앎을 알도록 하는 반성적-전반성적인 앎의 과정이다. 가치화는 개인이 자신의 세계관에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신념에 대하여 순응-불순응하는 과정이다. 언어화는 말함-조용히 있음과 움직임-정지함을 통해 가치화된 이미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둘째는 노출-은폐(revealing-concealing), 가능-제한(enabling-limiting), 연결-분리(connecting-separating)를 통하여 관계의 율동적 패턴(rhythmicity)을 나타낸다. 노출-은폐는 열려있음-닫혀있음의 사고 즉, 존재하는 것과 보여지는 것이라는 상호 인간의 이중성과 관련이 있다. 가능-제한은 동시에 선택하는 모든 것 속에는 기회-제한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연결-분리는 타인과 사고, 사물, 상황과 함께 있으며 동시에 떨어져 있는 것이다. 셋째로 초월(transcendence)은 강화성(powering), 독창성(originating), 변형성(transforming)을 갖는 과정이다(이정숙 등, 2002). 강화성은 비존재의 측면에서 존재 확인-미확인의 추진-저항의 과정이다. 독창성은 삶의 확실성-불확실성 속에서 순응-불응하는 새로운 방식을 개발하는 것이다. 변형성은 익숙함-생소함의 관점이 변화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Parse의 인간되어감 이론에 근거한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Parse의 연구방법은 현상학적이고 해석학적인 것으로 사람이 어떠한 삶을 영위하는지에 대해 기술하고 체험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 본질은 우주적인 건강의 체험들로 슬픔, 제한-자유 그리고 고통을 의미한다.

다차원적으로 의미를 구성한다는 것은 가치화와 상상

표 1. 참여자들의 일반적인 특성

(N=8)

대 상	연 령	성 별	근무기관	치료대상	임상경력
참여자1	31	여	사설치료실	소아	8년
참여자2	29	남	대학병원	성인	3년
참여자3	32	남	요양시설	성인	7년
참여자4	29	여	재활병원	성인	7년
참여자5	28	여	재활병원	성인	4년
참여자6	25	여	요양병원	성인	2년
참여자7	24	여	대학병원	성인	8개월
참여자8	28	남	사설치료실	소아	6년

화의 언어화를 통해서 현실을 공동창조 하는 것이다. 율동적인 관계패턴을 함께 공동창조 한다는 것은 노출-은폐와 가능-제한, 연결-분리의 역설적인 단일체를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공동 초월한다는 것은 변형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독창성을 독특한 방식으로 강화 하는 것이다. Parse 연구의 특징 중 하나는 언어-예술인데 참여자들이 진술한 총체적인 경험의 전반적인 패턴을 언어적 추상개념의 구조로 담아 미학적으로 단순하고 의미론적으로 명료하게 기술 해명하는 것이다. 이는 연구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결과를 하나의 시(poem), 그림(picture), 노래(song)등의 예술적인 표현으로 희망을 생생하게 표현하는 것이다(노춘희, 2007). 이에 따라 연구방법은 크게 참여자의 서술 자료를 추출-종합과정의 결과로 발견적 해석 과정 그리고 언어-예술로 이어지는 데 본 연구는 이 과정을 충실히 따랐다.

1) 자료수집

자료는 2011년 2월에 수집하였고 1~2회 대화를 하였으며, 연구자의 '작업치료사로서 근무하면서 겪게 되는 관계 갈등은 무엇인지 이야기해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참여자들이 '진정으로 함께 하는' 자세로 '너와 나의 관계' 형성을 통해 자기 경험을 털어 놓도록 하였다. 인간되어감의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참여자 중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대화를 하면서 녹취를 하고 녹취록으로 만들어 보충하였다. 이때 연구자는 참여자의 경험을 판단하지 않고 참여자의 구술 흐름에 따르는 형태로 대화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진행은 Parse의 인간되어감 연구 방법을 따른 것으로 인터뷰가 아니라 연구자와 참여자가 진정으로 함께 하는 너와 나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비구조적인 대화를 나누는 과정이다(Parse, 2001). 연구자는 참여자가 서술한 경험을 어떻게 회상했는지, 현재의 경험은 어떠한지, 또한 그 경험으로 인해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에 대해 드러낼 수 있도록 대화를 하였다.

2) 자료 분석

(1) 추출-종합과정

자료의 분석은 연구자가 참여자의 언어로부터 과학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체험의 구조를 추출하는 것이다. 즉 참여자가 묘사한 체험에서 의미를 이끌어내도록 기록된

내용에 나타나는 구조(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체험)를 확인하는 것으로써(Parse, 2001), 본 연구에서 분석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자의 언어를 적은 기록에서 경험의 주요 내용을 추출하였다. 둘째, 추출한 주요 내용을 연구자의 언어로 종합하였다. 셋째, 각 참여자의 서술에서 언어-예술을 만들었다. Parse의 연구방법에 따르면 참여자의 '체험'을 있는 그대로 언어화한 것을 '언어-예술'이라고 표현한다. 이는 참여자의 체험을 명제화 하는 것으로 인간되어감 이론에서는 인간을 이해하는 학문의 예술적 요소로서 삶에 대한 개인의 관점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넷째, 만들어진 언어-예술에서 핵심개념을 다시 뽑아냈다. 이 때 구조는 언어-예술의 중심 의미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다섯째, 추출된 구조를 생생한 경험의 구조로 종합하였다.

(2) 결과로서 발견적 해석

분석된 자료의 해석은 체험의 구조를 이론과 연결시키는 작업이며 논리적이고 추상성이 높으며 창조적인 마지막 과정으로 구조적 통합과 개념적 해석과정을 거친다. 구조적 통합과정에서는 형성된 구조를 인간되어감 이론의 구조로 통합하고, 개념적 해석과정에서는 인간되어감 이론의 개념을 사용하여 체험의 구조를 구체화한다. 체험의 구조는 과거, 현재, 미래를 합한 역설적인 삶이다(Parse, 2001). 이에 대한 발견적 해석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연구자는 예술적 표현을 활용할 수 있는데 주로 희망, 기쁨-슬픔, 제한-자유, 만족, 애통, 고통 등과 같은 체험의 의미를 탐색하기 위해 어휘, 상징, 음악, 은유, 시, 사진, 그림 혹은 활동을 기술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총체적인 경험의 느낌으로 참여자들과 함께 했으며 8명 참여자의 경험을 구조적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인간되어감 이론의 개념과 연결하여 희망의 구조를 예술을 통해 이미지로 드로잉 하였다.

(3) 연구의 엄격성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엄격성을 높이기 위하여 Maxwell, Yates, Bickman과 Rog(1996)가 제시한 방법을 따랐다. 기술적 타당도를 위해 참여자들의 행동과 말, 내러티브의 시작과 끊어짐 그리고 이어지는 과정의 흐름을 맥락에 맞게 가능한 정확하게 기술(녹취)하였다. 흐름의 경우 연구지면을 고려하여 내러티브들을 '...'으로 처리하여 축약하

거나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해석적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참여자의 목소리, 느낌, 행동 등 관찰 한 내용을 filed note에 적어 활용함으로써 해석적 결과가 참여자의 삶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도록 노력하였다. 이론적 타당도를 위해서 갈등 및 관계 갈등에 대한 연구논문을 1997년부터 2012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심도 있게 활용하였다. 평가적 타당도를 위해 정신간호학 전공 교수1명과 작업치료 전공교수 3명, 작업치료 전공 대학원생 8명(대학원 과정 2명, 석사 2명, 석사과정 4명)의 논평 및 해석적 의미를 나누었으며,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임상에서 근무하는 작업치료사의 체험적 구조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 내용의 결과와 분석의 타당성을 위해 십여 년 이상 Parse의 인간되어감 연구관련 교재와 논문을 다수 출간하신 정신간호학자 이옥자 교수와 공동 분석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참여자의 서술에 따른 추출 종합과정

연구 참여자들의 서술과 추출-종합과정은 다음과 같으며 특히 언어-예술과 개념적 통합은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다.

1) 참여자 1의 추출-종합과정

(1) 참여자 1의 서술

물리치료사들은...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팀장은 FIM을 자기도 쓴다고... 작업치료를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은근히 무시한다는 느낌이... 어떤 수녀님은 몬테소리교구 가지고 노는 게 작업치료라고... 얘기할 기회를 주지도 않고... 쉽지 않더라고요. 선생님과 교류하면서... 다양하게 보게 되기도... 변화하고 싶었던 거 같아... 교육에서 많이 도움도 받았지만... 해결되지 않는 의문점들... 스티디하고 친

표 2. 추출된 언어 예술과 개념적 통합

참여자	언어-예술	개념적 통합
참여자1	관계 갈등은 주변 사람들이 작업치료를 무시하면서 겪는 인간관계로서, 이러한 과정을 겪음으로서 자신의 내면을 성장시키는 체험이다.	가치화 변형성
참여자2	관계 갈등은 계속해서 코멘트를 하는 선임들과의 인간관계 갈등에서 자신만의 치료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꾸준히 자기발전을 이루는 체험 과정이다.	가치화 연결-분리 변형성
참여자3	관계 갈등은 시설에서 겪게 되는 기관과의 관계에서 오는 갈등이며 이를 극복하고 후임치료사를 위해 작업치료를 대외에 알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과정이다.	가치화 연결-분리
참여자4	관계 갈등은 자신과 맞지 않는 사람과의 인간관계의 갈등이며, 계속되는 노력에도 변하지 않는 치료사들을 보면서 자포자기하게 되는 체험과정이다.	가치화 가능-제한
참여자5	관계 갈등은 병원이 시스템으로 갈등이 생기는 기관과의 갈등이며, 자신의 미래도 밝지 않다는 부정적인 현실에 괴로워하는 과정이다.	가치화 연결-분리
참여자6	관계 갈등은 병원의 동료들과 겪게 되는 인간관계의 갈등을 겪고 있으며, 치료사들을 작업치료 외적인 일을 병행하는 기관과의 갈등을 겪게 되는 과정이다.	가치화 가능-제한
참여자7	관계 갈등은 주변에게 낯선 작업치료사로서 주변 사람들과 겪게 되는 인간관계의 갈등이며, 현실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훗날에는 작업치료가 발전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되는 체험과정이다.	가치화 연결-분리 변형성
참여자8	관계 갈등은 자신의 치료에 대해 부족함과 자괴감을 느끼고 환자에게 더 좋은 치료를 하고 좋은 치료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다.	가치화 변형성

구들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내면을 성장시키게도 했고 다양한 관점에 관심을... 지금은 좀 더 유연하게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처음 보단 더 많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상황이 좋아졌고... 작업치료사들이 작업치료를 즐기고 좋아했으면... 작업치료사로서 갈등을 느끼는게... 좋았다고 생각하구요.

(2) 참여자 1의 서술추출

물리치료사와 수녀님이 작업치료에 대해 무시하는 느낌을 받았고, 교육을 받고 친구들과 이야기 하면서 지금은 좀 더 유연해 질 수 있었다.

(3) 연구자 언어종합

주변사람들이 작업치료에 대한 인식이 적어 무시를 받는 갈등이 생기고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면서 자신의 내적 성장을 이루게 된다.

(4) 참여자 1의 언어-예술

참여자 1의 임상에서의 관계 갈등은 주변 사람들이 작업치료를 무시하면서 겪는 인간관계로서의 과정을 겪음으로서 자신의 내면을 성장시키는 체험이다.

2) 참여자 2의 추출-종합과정

(1) 참여자 2의 서술

치료하고 있을 때 선생님들이... 보고 끝나면... 코멘트 해주곤 했죠. 모르고 서툴러서... 도움이 되었는데 나중에는 싫었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선생님들의 생각과 똑같은 거 같다는 생각... 생각하는 골과 치료방법이 선임 선생님들과 많이 다를 때가 있어서... 나중에는 걸려서 듣게 되었고... 교육도 많이 들으려 다니고, 선임 선생님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책보고 공부도 많이... 치료의 근거를 당당하게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노력...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할수록 더 애정이 생기는 것 같아요.

(2) 참여자 2의 서술추출

선임선생님들이 치료가 끝나고 코멘트 해주는 것에 선임선생님들의 생각과 같다는 생각에 교육도 듣고 책도 보면서 치료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계속 공부하고 있다.

(3) 연구자 언어종합

선임들의 코멘트가 좋았으나 점차 선임의 생각과 동일시되는 것 같은 갈등에 놓이게 되고 자신만의 치료를 위해 계속해서 교육을 듣고 공부하면서 자기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4) 참여자 2의 언어-예술

참여자 2의 임상에서의 관계 갈등은 계속해서 코멘트를 하는 선임들과의 인간관계 갈등에서 자신만의 치료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꾸준히 자기발전을 이루는 체험 과정이다.

3) 참여자 3의 추출-종합과정

(1) 참여자 3의 서술

요양원에 입사하자마자... 하수구 뚫기, 변기 뚫기, 외근 운전... 작업치료 외적인 일... 국장님은... 환자분들이 물리치료를 더 좋아한다고 단정하고... 서운했고... 5년... 아직 까지도 국장님하고 그다지 사이가... 작업치료와 물리치료... 비교 하면서 깎아내리는 것 같고... 후임 치료사는 이런 일 하지 않고 작업치료만을 했으면... 선배 작업치료사로써... 노력 해보겠다. 그러던 중 좋은 기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우수프로그램 사례 발표... 2등... 입상한 팀 중 주 치료사가 순수 작업치료사인 것은... 유일... 결과가 나오니 국장님이 작업치료 외적인 일을 시키는 경우가 크게 줄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재활시범사업... 제안... 담당과장님이 참관하여 보시고 큰 감동... 작업치료가 프로그램을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직업인지 몰랐다고... 시범사업이 끝나고 유성 건강보험 과장님이 내년에도 또 수고해 달라고...

(2) 참여자 3의 서술추출

요양원에서 국장님은 작업치료보다는 외적인 일을 더 시키면서 작업치료를 비교하고 깎아내리는데 서운해 하고 후임 작업치료사를 위해 작업치료를 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들을 맡아 하게 된다.

(3) 연구자 언어종합

시설관리자가 작업치료를 무시하면서 생기게 되는 갈등으로 후임치료사가 작업치료만을 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작업치료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4) 참여자 3의 언어-예술

참여자 3의 임상에서의 관계 갈등은 시설에서 겪게 되는 기관과의 관계에서 오는 갈등이며 이를 극복하고 후임 치료사를 위해 작업치료를 대외에 알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과정이다.

4) 참여자 4의 추출-종합과정

(1) 참여자 4의 서술

치료사들과의 관계... 친구랑은... 다르니까... 사람과의 사이가 어디까지인지... 사회생활이면 인간관계는 여기까지... 나만 고민하는지... 싫어하는 행동들이... 직함을 가지고 있는... 연차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얘기를 해도... 팀장님만큼의 파급력을 가지고 있지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신경을 안썼기... 자신만 봤기 때문... 나를 감시... 다른 사람도... 부담감으로 항상... 지적해도 안 고쳐지면... 스트레스... 얘기를 했는데도... 똑같은 행동을... 반복... 그냥 방치할 때도... 짜증 혼자 냈다가 혼자 풀고 하니깐... 환자한테 낼 때도...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 고비 지나가면 다 좋은... 환경도... 하는 일도 괜찮고... 조금 지나면 그런 고비가 올 때 같은 단계를 계속 반복... 혼자 너무 지쳐서... 심적으로 고민이 있으면... 몸도 상태가 안 좋아... 치료에도 집중하기도 힘들고... 내 탓이 아닌 것도 내 탓으로... 스트레스는 계속 커지는...

(2) 참여자 4의 서술추출

자신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는 치료사들과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말을 해도 계속 듣지 않아 방치를 하게 되고 그것을 보는 자신의 스트레스는 계속 커지게 되었다.

(3) 연구자 언어종합

자신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치료사들과 갈등을 겪게 되고 말을 듣지 않아 결국 자신도 포기하지만 계속해서 그 행동을 하는 치료사들에게 신경을 쓰게 된다.

(4) 참여자 4의 언어-예술

참여자 4의 임상에서의 관계 갈등은 자신과 맞지 않는 사람과의 인간관계의 갈등이며, 계속되는 노력에도 변하지 않는 치료사들을 보면서 자포자기하게 되는 체험과정이다.

5) 참여자 5의 추출-종합과정

(1) 참여자 5의 서술

근무환경... NDT청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수가대로 페이 책정이 되다 보니깐 연차대우를... 연차가 5?6년차까지는 데리고 있는데... 고년차를 안 쓰려고 하잖아요... 다른 직업은 노하우나 그런 것들에 인정을 받는데 수가대로 책정이 되고 병원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고년차를 별로 필요로 하지 않잖아요... 치료사는 필요하지만 병원서는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치료사를 함부로 보는 경우도 있고 특히 PT보다 더 안 좋은 대우를 받아요... 친구들을 보면 점점 꿈을 키워가거든요?... 그 직업에 대해서... 교수직 준비하는 분들은 꿈이 있겠지만... 임상적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직업을 바꿔야 하나?... 함부로 이직도 어렵고... 갈수 있는 티오가 없어요... 팀장 아니면 못가니깐... 앞으로 갈 때 자리가 없어요... 병목현상이라고 해야 하나?... 자리가 점점 없어지니깐... 진로 문제... 교육비대로 나가고 돈은 돈대로 쓰고 수가로 인정도 못 받고...

(2) 참여자 5의 서술추출

수가대로 페이 책정이 되는 근무환경으로 고년차를 안 쓰려고 하고 치료사를 함부로 보는 경우도 생기게 되면서 직업을 바꿔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다.

(3) 연구자 언어종합

병원의 특성상 고년차의 치료사를 쓰지 않으려 하고 자신도 언젠가는 병원에서 쫓겨날 것이라는 고민에 빠지게 된다.

(4) 참여자 5의 언어-예술

참여자 5의 임상에서의 관계 갈등은 병원이 시스템으로 갈등이 생기는 기관과의 갈등이며, 자신의 미래도 밝지 않다는 부정적인 현실에 괴로워하는 과정이다.

6) 참여자 6의 추출-종합과정

(1) 참여자 6의 서술

치료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협조를 부탁드려도 조절이 안되요. 피티 선생님들이 지나가면서 비꼬는 듯 하게 얘기를 하니깐... 환자한테 집중해줬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세

요. 혼자 찾아서 공부하다보면 지치고... 간병사하고... 간호과랑 트러블이... 보호자분들은 높은 기대치를 갖고 계세요. 환자분들은 한번 한 테스크는 안 할려고... 생각했던 치료가 깨지는 거잖아요. 여러명이다 보면 시간 맞춰주기가 힘들잖아요. 건물이 7, 8개 떨어져 있어요. 병실로 가거나 할 때 우산 쓰고 가야되고... 치료 시간도 적고... 수요일마다 직원예배를 드리는데... 치료사들한테만 한풀이를 하고... 강제로 동원되는 선생님들도 있어서 트러블이 있죠.

(2) 참여자 6의 서술추출

환자가 여러 명이라 시간을 맞추기가 힘들고 건물이 떨어져 있어 병실로 가는 것이 어렵고 치료사들에게 간호과와 간병사가 한풀이를 하는 경우도 있고 강제로 선생님들이 동원되어 트러블이 생기기도 하였다.

(3) 연구자 언어종합

환자가 많아 시간표를 맞추기가 힘들고 주변 동료들도 작업치료를 도와주지 않아 힘이 들고 강제로 작업치료 외적인 일로 나가는 경우가 생겨 힘들어한다.

(4) 참여자 6의 언어-예술

참여자 6의 임상에서의 관계 갈등은 병원의 동료들과 겪게 되는 인간관계의 갈등을 겪고 있으며, 치료사들을 작업치료 외적인 일을 병행하는 기관과의 갈등을 겪게 되는 과정이다.

7) 참여자 7의 추출-종합과정

(1) 참여자 7의 서술

인간관계... 사회생활... 고민을 많이... 회의감... 치료하면서... 궁금한 것들을 시원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사회생활에 있어서 인간관계랑 관련이 되나보니까... 쉽게 물어볼 수 없는 부분들도 많고... 치료사가 아니라 회사원이었으면... 작업치료과다 보니까... 대학시절 경험에 제한도... 삶의 질이 다른 아이들 보다 낮아지는 건 아닐까... 때려 치고 젊었을 때 경험을 많이 해야 되나 딜레마... 작업치료를 포기하게 되면... 공부해온 거라든지 결심이라든지... 헛것이 될 것 같아서 참고 견뎌 왔었던 것... 사람관계도 중요하니까 이겨나가면서 성숙해지고... 작업치료... 더 발전 되겠죠... 40대, 50대가 됐을 때 작업치료가 더 알려져 있을 거라고 기대... 외국처럼 환자나 장애인을

위한... 선진국이 되어 있을 것 같고... 힘든 거는 많지만 열심히 하게 되면 그런 세계가 열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 참여자 7의 서술추출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에 회의감을 느끼고 다른 사람보다 낮아진다는 딜레마에 빠지기도 하지만 이러한 것을 이겨나가면서 성숙해지고 미래에는 선진국처럼 작업치료가 더 알려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3) 연구자 언어종합

홍보가 되지 않고 많이 알려지지 않은 작업치료사로서 주변사람과 어울리지 못하고 갈등을 겪게 되지만, 스스로가 발전하여 극복하고, 미래에는 작업치료가 많이 알려지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된다.

(4) 참여자 7의 언어-예술

참여자 7의 임상에서의 관계 갈등은 주변에게 낯설은 작업치료사로서 주변 사람들과 겪게 되는 인간관계의 갈등이며, 현실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훗날에는 작업치료가 발전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되는 체험과정이다.

8) 참여자 8의 추출-종합과정

(1) 참여자 8의 서술

어려운 친구들을 만날 때 고민... 임상 10년차 20년차... 선생님이 애를 치료 했다면...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들... 6년차인데... 제 안의 확신들이 없는 게 고민스럽습니다... 매뉴얼이 정해져 있는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태도나 자질 면에서는 요즘 많이 고민하는 부분들입니다. 대학원 와서, 내가 좋은 치료사 인가? 하는 생각... 2학기에 많이... 바쁜 거예요... 학교 다니고 강의를 하고, 종일 치료하고, 그 외 업무들... 수면이 부족해지고... 능률도 안 오르고... 치료하다가 끝나고 해야 할 일들이 생각나고... 회의를 느꼈어요. 딴 생각하고, 적응반응에 집중하지 않고, 애의 반응에 따라서 계속 활동이랑 자극을 다르게 줘야 하는데... 좋은 치료사가 되고 싶어서 왔는데, 반대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민하고 많이 힘들었어요... 열심히 치료하는 치료사라고 생각했는데... 환경에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구나... 많은 회의들이 있었어요.

표 3. 핵심개념의 발견적 해석

핵심개념	구조적 전환	개념적 전환
작업치료에 대한 주변사람들의 이해부족 초임으로서 주변사람과의 갈등 작업치료에 불이익을 주는 기관의 시스템 밝은 미래를 위해 노력	기관의 시스템 주변사람들의 무시 작업치료홍보 자기발전 미래를 향한 희망으로 변화	가치화 연결-분리 강화성 변형성
구조		
임상에 있는 작업치료사가 겪게 되는 관계 갈등은 작업치료에 대한 주변사람들의 이해부족과 초임으로서 주변사람들과의 갈등, 작업치료에 불이익을 주는 기관의 시스템에 작업치료 효과를 보여주어 밝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다.		
구조적 전환		
임상에 있는 작업치료사가 겪게 되는 관계 갈등은 기관의 시스템과 주변사람들의 무시를 작업치료 홍보와 자기발전을 하면서 미래를 향한 희망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개념적 통합		
임상에 있는 작업치료사가 겪게 되는 관계 갈등은 가치화를 연결-분리하여 강화되고 변형되어 가는 과정이다.		
예술적 표현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 내 이름자를 써 보고 / 흙으로 덮어 버렸습니다. / 짙은 밤을 새워 우는 별레는 /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우에도 /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거되다. <출처: 윤동주 :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1948) -별 헤는 밤 중에서>		
지금의 현실 앞에서, 어쩌면 우리는 방금 아마추어의 끈을 놓고 프로페셔널로써의 입문을 눈 앞에 두고 있는 의뢰자 혹은 치료사인지도 모른다. 장애(barrier)를 디자인해 가는 전문가로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 앞에서 보다 적극적인 해결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의뢰인으로서 만의 모습이 아닌 치료사로서의 모습으로의 선택을 주저할 까닭이 없다. <출처: 고대영 : 장애(Barrier)를 건넌다(2009) - 작업치료 협회보 40호 중에서>		

(2) 참여자 8의 서술추출

어려운 친구들을 만날 때 확신을 갖지 못하고, 대학원을 다니면서 바쁘고 좋은 치료사가 되고 싶었는데 환경에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3) 연구자 언어종합

자신의 치료에 자괴감을 느끼고 경력 있는 치료사의 능력을 갖고 싶어 하며, 바쁜 환경으로 생각한 것에 반대로 하는 자신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4) 참여자 8의 언어-예술

참여자 8의 임상에서의 관계 갈등은 자신의 치료에 대해 부족함과 자괴감을 느끼고 환자에게 더 좋은 치료를 하고 좋은 치료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다.

2. 핵심개념의 발견적 해석

작업치료사로써 겪는 갈등의 결과는 표 3과 같다. 1) 작업치료에 대한 주변사람들의 이해부족, 2) 작업치료에 대한 인식부족, 3) 작업치료에 불이익을 주는 기관의 시스템이라는 세 가지 개념으로 추출되었다. 세 개의 핵심개념으

로 임상에 있는 작업치료사가 겪게 되는 관계 갈등은 ‘작업치료에 대한 주변사람들의 이해부족과 작업치료에 불이익을 주는 기관의 시스템에 작업치료 효과를 보여주어 밝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구조로 나타났다.

추출된 구조를 생생한 경험의 구조로 전환시키면 ‘임상에 있는 작업치료사가 겪게 되는 관계 갈등은 기관의 시스템과 주변사람들의 무시를 작업치료 홍보와 자기발전을 하면서 미래를 향한 희망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으로 정리된다. 위의 발전적 해석의 결과인 세 개의 핵심개념을 구조적으로 전환시켜 개념적으로 통합시키면 다음과 같이 정리 될 수 있다.

참여자들의 체험한 작업치료사로써 느끼는 고통은 작업치료라는 학문의 이해 부족, 기관 시스템의 부조라는 가치화를 드러내었다.

참여자의 대화에서 추출한 핵심개념으로 체험의 구조를 서술적으로 표현하여 종합한 체험의 내용은 표 3과 같다. 임상에 있는 작업치료사의 관계갈등에 대한 구조와 Parse이론이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핵심개념을 Parse의 인간되어감 이론과 관련시켜 구조적으로 전환 하였다.

IV. 고 찰

보건의료 전문직의 하나인 작업치료사는 직접적인 클라이언트의 치료와 클라이언트와의 접촉을 통해 장애인들의 현실적응과 재활의욕에 직접 영향을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직무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권정아, 2006). 하지만 병원조직에서는 다양한 갈등으로 인하여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장혜숙, 1992). 또한 이직을 고려하는 가장 큰 이유로 인간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를 꼽았다(권덕화와 고효정, 2003). 갈등은 순기능적인 갈등과 역기능적인 갈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순기능적인 갈등의 결과는 의사결정의 질을 개선하고 창의성과 혁신을 촉진하며, 조직의 생산성도 향상시킨다(김대수, 2004).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이 임상에서 겪는 관계 갈등은 작업치료에 대한 주변사람들의 인식부족으로 인한 인간관계에서의 갈등, 초임으로서 겪게 되는 주변사람들과의 갈등 그리고 작업치료 외적인 일을 요구하는 기관 시스템의 갈등

등 등이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세 가지로 나누어 논의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작업치료에 대한 주변사람들의 인식이 부족하여 작업치료사와 마찰을 빚게 되는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이다. 작업치료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1950년대이고, 1969년 첫 면허시험이 있는 이후로 2010년 현재 5390여명의 작업치료사가 배출되었다(대한작업치료사협회, 2011). 하지만 작업치료에 대한 수요 및 공급의 양적 팽창과 경향 등을 비추어볼 때 인식수준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이준우와 이지현, 2008). 본 연구에서도 작업치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주변 사람들과 임상에서 근무하는 작업치료사 간의 갈등이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작업치료에 대해 인식이 부족한 사람들은 작업치료를 신체기능 증진과 일상생활 활동 훈련에 국한하여 단정 짓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놀이 및 여가활동 훈련을 하기 위해 주변에서 게이트볼을 한다거나 산책을 할 때에는 ‘작업치료는 노는 직업’이라는 무시하는 발언을 듣게 된다. 또한 뇌졸중이나 외상성 뇌손상을 받은 클라이언트에게 퍼즐과 체를 제공할 때에는 ‘작업치료는 쉬운 것으로 환자에게 치료 한다’는 말을 듣게 된다. 이러한 국한된 인식으로 인해 임상에 있는 작업치료사는 치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오해 받고 있었다. 또한 처음 임상에 나가 작업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해주면 ‘몬테소리 교구 가지고 노는 것이라구 같네’, 혹은 ‘작업치료에서 쓰는 FIM을 나도 쓰는데’ 라는 말로 작업치료사에게 상처를 주고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었다. 참여자들은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였고 실행에 옮기기도 하였다. 사람들이 작업치료에 대하여 물어볼 때 자신이 설명할 수 있는 작업치료를 말해주기 위해서 스스로 대학원에 진학하여 더 공부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주변사람들이 노는 직업이라는 말을 극복하기 위해서 치료에 더 열심히 하고 클라이언트 중심(client-centered) 치료를 하여 치료의 효과를 보여주는 노력을 하고 있었다. 작업치료가 많이 알려지지 않은 현실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려 노력함으로써, 미래를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희망을 갖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즉, 자신이 스스로 노력하고 자기발전을 계속하여 작업치료에 대한 미래를 밝게 변화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권정아(2006)와 한대성(2006)은 작업치료의 인식이 낮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본 연구에서 참여자 1, 참

여자 2와 참여자 6은 직장동료 등이 작업치료에 대한 인식과 정보가 많지 않아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작업치료에 대한 많은 홍보가 필요하며 많은 연구로 이를 알려야함을 나타내고 있다.

두 번째로 초임으로서 겪게 되는 주변사람들과의 갈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작업치료사는 작업치료를 받는 클라이언트가 손상받기 이전 상태로 신체적인 면에서나 기능적인 면에서 원상복귀 되기가 힘들거나 회복의 속도가 상당히 느린 경우에 설정한 치료목표 그리고 변화시킬 수 없는 클라이언트의 상태등과 관련하여 스트레스에 노출되기 쉽다. 이러한 과정에서 작업치료사들은 클라이언트, 보호자, 의사, 혹은 직장상사 그리고 동료들로부터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김정희, 1989). 또한 손운선(2012)은 병원종사자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이 이직의도와 조직 갈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개인 간 갈등이 낮을수록 직무만족도, 조직몰입도가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임으로 온 작업치료사가 임상에서 자신의 치료에 대한 신뢰가 적었고 그로 인해 치료를 하는 클라이언트를 보면서 자신의 치료가 맞는지 변화를 시켜야 하는지 내적인 갈등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다른 경력이 있는 유능한 작업치료사가 치료를 해주었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어요’라는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였다. 자신의 내적 갈등과 클라이언트와의 관계를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좋은 치료사가 되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그리고 좋은 치료사가 되기 위해서 교육을 열심히 듣고, 대학원에 진학하여 더 많은 지식과 치료방법을 배움으로써 클라이언트에게 보다 높은 양질의 서비스를 줄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 한대성(2006)은 작업치료사의 직무스트레스에서 전문지식과 기술의 부족 요인 중 하위 항목인 치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참여자 8은 자신의 치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내적 갈등을 겪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나 작업치료사의 질적인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교육이 필요함을 암시하고 있다.

또 초임으로 겪는 또 하나의 갈등은 선임들의 계속되는 코멘트로 인한 갈등이었다. ‘임상초기에는 눈치를 많이... 선생님들이 옆에 와서 지켜보고 끝나면 코멘트... 고마웠지만 선임선생님들과 치료가 많이 다를 때가 있어요’ 등의 선임과 갈등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서 교육을 받고 대학원에 진학하여 클라이언트에 적절한 치료방법을 찾고 자신의 치료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려 노력하였다. 그리고 자신이 선임이 되었을 때에는 자신의 생각보다는 근거에 입각한 설명을 하고 후임치료사들이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노력하였다. 홍태근(2003)은 병원 직원의 역할 갈등 및 역할 모호성에 대하여 연구하였는데 업무수행에 대한 피드백이 클수록 직원이 받는 역할 모호성이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방용주(2003)는 병원 구성원들의 직종별 조직몰입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를 하였는데 상사에 대한 계층적 갈등을 일방적 명령, 지나친 권위주의, 지나친 간섭, 차별대우 등 8가지 측면에서 조사하였다. 지나친 간섭, 일방적 명령 등이 조직몰입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참여자 2는 상사의 지나친 간섭으로 인해 자신의 역할에 모호성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상사와의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자신의 치료 근거를 설명할 수 있는 치료를 하기 위하여 정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세 번째로 작업치료에 불이익을 주는 기관 시스템과의 갈등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요양시설과 병원 시스템의 갈등이 나타났다. 요양시설에서 생각하는 작업치료는 프로그램 시행하고 물리치료와 비슷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또한 요양시설에서는 ‘하수구 뚫거나, 변기를 뚫거나 세면대를 고치거나 운전 등의 일을 했어요.’ 등 작업치료보다 이러한 작업치료 외적인 일을 하면서 시설과 갈등을 느끼게 되었고, 주변에서도 작업치료사가 아닌 작업을 하는 사람으로 무시를 당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참여자 3은 이러한 시설 시스템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후임치료사가 요양시설에 왔을 때 작업치료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작업치료를 홍보할 수 있는 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프로그램 등을 공모할 때 참여하여 작업치료의 효과를 보였고, 전국에서 시도 별로 한 곳씩 선정해서 하는 재활사업에 참여하여 기관 사람들에게 작업치료의 홍보를 하기도 하였다. 그럼으로 인해 작업치료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으며, 요양시설에서도 작업치료의 효과를 보고 작업치료 외적인 일 보다 작업치료에 정진할 수 있도록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작업치료에 대한 인식은 높으나 남자가 부족한 병원에서는 남자 작업치료사를 근무시간에 작업치료 외적인 일을 시키는 병행하는 경우가 있었다. 타 의료기사 직종보다는 낮은 인식

으로 인해 남자작업치료사를 데리고 작업치료 외적인 일을 시키는 경우였다. 병원에서의 또 다른 갈등은 경력 있는 작업치료사를 지양하는 것이다. 청구 수가가 낮은 작업치료실에 치료를 하는데 있어 연차가 높은 치료사를 쓰며 높은 임금을 주는 것 보다 적은 임금으로도 채용할 수 있는 연차가 낮은 치료사를 채용하는 것이 병원에 이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럼으로 인해 미래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고, 병원이라는 거대 조직에 대해 맞설 방법을 찾지 못하였다. 박선하(2012)는 갈등의 관리 유형에 대해 문제해결유형, 강요형, 회피형, 타협형, 양보형, 혼합형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갈등의 관리유형은 문제해결유형, 타협형, 회피형이 나타났다. 문제해결유형은 자신과 클라이언트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려고 노력하였다. 타협형은 자신에게 불이익을 주는 기관에 작업치료의 결과를 보여주고 기관 사람들의 의식이 변화하기를 바라는 모습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작업치료의 효과를 대외적으로 알려 기관에 보여줌으로써 기관장의 인식 변화를 시키는 타협형이 나타나기도 하였고, 거대한 기관의 시스템 자체를 변화시키기에는 부족하여 기관의 시스템에 순응하는 회피형도 나타났다. 하지만 참여자 중 대부분은 타협형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작업치료사들이 노력하면 주변이 변화를 할 수도 있다는 희망을 나타내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임상에 있는 작업치료사의 갈등 구조는 크게 인간관계와 기관과의 관계로 나타났으며, 갈등의 원인을 보면 작업치료의 낮은 인식과 인지도의 문제였다. 하지만 연구에 참여한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주변에서 조금씩 작업치료를 홍보하고 있었으며 꾸준히 자기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미래의 작업치료를 희망적으로 낙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것은 자신의 주변사람들부터 작업치료에 대한 인식을 시킴으로써 미래에는 모든 사람들이 작업치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기도 하다.

V. 결 론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사람과 사람이 생활하게 되고 서로 다른 성격의 사람들이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 갈등은 순기능적인 결과와 역기능적인 결과로 나타나지만 이러한

갈등을 드러내고 해결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스스로 성숙해지고 작업치료사가 힘을 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갈등의 원인으로 나타났던 작업치료의 인식부족을 참여자들이 자신의 방식으로 주변사람들에게 작업치료를 홍보하듯이 자신과 상호작용하고 있는 사람들부터 작업치료를 알리고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병원, 요양시설, 사설기관에서 근무하는 작업치료사들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나, 병원, 요양시설, 사설기관에서 근무하는 치료사들에 대한 각각의 연구가 필요하고 대전에서만 연구하였으나, 지역별로 다양한 연구시도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권덕화, 고효정. (2003). 종합병원 일반간호사의 근무지 이동과 관련된 직무스트레스 및 이직의도. 간호행정학회지, 9(1), 141-150.
- 권정아. (2006). 작업치료사의 직무만족도 관련요인(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서울.
- 권정아, 노재훈, 장세진, 원종욱, 심상효. (2007). 작업치료사의 직무만족도 관련요인. 대한작업치료학회지, 15(1), 117-130.
- 김대수. (2004). 병원조직의 갈등원인과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동의대학교, 부산.
- 김정희. (1989). 지각된 스트레스, 인지세트 및 대처방식의 우울에 대한 작용(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서울.
- 노춘희. (2007). 인간되어감 이론으로 본 지역사회 공동체. 서울, 한국: 현문사.
- 노춘희, 이옥자, 이정숙, 고명숙. (2002). 간호에 대한 새로운 조명. 서울, 한국: 현문사
- 대한작업치료사협회. (2002). 작업치료정의. <http://www.kaot.org>
- 대한작업치료사협회. (2011). 작업치료사 면허등록현황. <http://www.kaot.org>
- 민명식. (2008). 근거이론에 의한 대학병원 물리치료사들의 소진경험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경기.
- 박선하. (2012). 병원 간호사의 갈등관리 유형에 따른 의사소통능력,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 방용주. (2003). 병원 구성원들의 직종별 조직몰입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S 의료관리원을 대상으로(석사학위논문). 건양대학교, 충남.
- 손운선. (2012). 병원종사자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이 이직의도와 조직갈등에 미치는 영향(박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전북.
- 양영애, 허진강, 노영만, 이규창. (2007). 작업치료사의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대한인간공학회지*, 26(3), 132-145.
- 이상윤, 이경희. (2002). Parse의 Human becoming 연구방법론을 적용한 국내외 연구 동향 분석. *정신간호학회지*, 11(1), 43-61.
- 이재신, 이택영, 이지연, 유은영. (2005). *작업치료학 개론*. 서울, 한국: 탐메디오피아.
- 이정숙, 이옥자, 고명숙. (2002). 개정판 인간되어감 이론. 서울, 한국: 현문사.
- 이준우, 이지현. (2008). 일반인들의 작업치료와 물리치료에 대한 인식수준 차이 및 홍보효과. *고령자·치매 작업 치료학회지*, 2(2), 25-33.
- 장혜숙. (1992). 학교장의 지도성과 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요인 및 인지된 직무스트레스와의 관계(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서울.
- 한대성. (2006). 작업치료사의 직무스트레스 관련요인(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원주.
- 한대성, 정민예, 유은영, 정보인. (2008). 병원에 근무하는 작업치료사의 직무스트레스 요인. *대한작업치료학회지*, 16(1), 109-118.
- 홍태근. (2003). 병원 직원의 역할갈등 및 역할모호성이 고객서비스 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논문). 인제대학교, 김해.
- Karasek, R. (1987). *Forskning for framtidens arbetsliv*. Stockholm, Sweden: Bokforlaget Prisma.
- Lee, S. Y., & Lee, K. H. (2002). An analysis of research trend in domestic and outside applied Parse's human becoming theor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1(1), 43-61.
- Maxwell, J. A., Yates, B. T., Bickman, L., & Rog, D. J. (1996). *Qualitative research design: An interactive approach*. California, CA: Sage Publications.
- Parse, R. R. (1992). Human becoming: Parse's theory of nursing. *Nursing Science Quarterly*, 5(1), 35-42. doi:10.1177/089431849200500109
- Parse, R. R. (2001). The lived experience of contentment: A study using the Parse research method. *Nursing Science Quarterly*, 14(4), 330-338. doi:10.1177/08943180122108481
- Parse, R. R. (2007). The human becoming school of thought in 2050. *Nursing Science Quarterly*, 20(1), 308-311. doi:10.1177/0894318407307160
- Wressle, E., & Öberg, B. (1998). Work-related stress among occupational therapist in Sweden. *British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61(10), 467-472. doi:10.4276/030802211X13099513661117

Abstract

Study on Occupational Therapists in Terms of Their Experience in Relationship Conflicts: Applied to Parse's Human Becoming Research Methodology

Song, Byoung-Nam^{*}, M.P.H., O.T., Kim, Seul-Gi^{**}, B.H.Sc., O.T.,
Park, Ji-Hoon^{***}, B.H.Sc., O.T., Jang, Jong-Sik^{****}, M.P.H., O.T.,
Jeon, Young-Hye^{*****}, B.H.Sc., O.T., Jeon, Byoung-Jin^{*****}, Ph.D., O.T.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Chungbuk Health Science University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Bobath Memorial Hospital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Daejeon Health Sciences College Child Development Institute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Daejeon Rehabilitation Center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Bonifacio Rehabilitation Center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Kangwon University

Objective : This study aimed at discovering the structure of relational conflicts experienced by occupational therapists working in a clinical setting.

Methods : For this study, conversations with eight occupational therapists undertaking occupational therapy in a clinical setting were carried out once or twice during February 2011. The study collected data up to a saturation point at which the stories become repetitive regarding the relational conflicts experienced by participants in a clinical setting, or when no more new contents were discovered.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were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of Parse's Human Becoming Theory.

Results : As a result of this research, conflicts experienced by occupational therapists were revealed to be from a lack of understanding of occupational therapy by nearby people, conflicts with nearby people such as newly appointed therapists, and an institutional system that is not favorable to occupational therapy. To solve these issues, the participants tried to solve their conflicts by proposing the effects of occupational therapy while pursuing self development. Through these efforts, they were hoping to achieve a bright future for occupational therapy.

Conclusion : The conflicts experienced in a clinical setting are mostly caused by a lack of proper perception regarding occupational therapy by nearby people owing to a dissatisfactory promotion of occupational therapy. It is therefore necessary to make the effort to promote occupational therapy.

Key words : Occupational therapy, Parse's human becoming, Relationship conflict